

# 스포츠산업 현황 분석을 통한 정부 지원정책 수립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 체육지표」를 중심으로<sup>1)</sup>

신성연\*, 류윤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e-mail: blessryu@sports.re.kr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Government Support Policy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the Sports Industry: Focused on the Sport Indicator in Korea

Seongyeon Shin\*, Yoonji Ryu\*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 요약

본 논문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한국의 체육지표」에 수록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한국의 스포츠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지속적인 스포츠산업 성장을 위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에 활용된 지표는 크게 '스포츠용품 제조업 및 프로·경주 스포츠 현황', 그리고 '스포츠 시설 및 이벤트와 관련된 현황' 두 가지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첫째, 스포츠용품 제조업 및 프로·경주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1) 스포츠용품의 생산 및 수출입, 2) 프로스포츠, 3) 경주스포츠와 관련된 지표를 기반으로 내용이 작성되었다. 둘째, 스포츠 시설 및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1) 스포츠 시설, 2) 스포츠 이벤트에 관련된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산업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스포츠용품 생산업체의 수는 2017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추이를 나타내는 반면 스포츠용품 매출규모는 점진적인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포츠용품의 수출입 현황의 경우, 스포츠용품의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와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스포츠시설 및 이벤트 측면에서는 2019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1인당 면적은 전년도와 비교해 5% 증가하였다. 그리고 국내 스포츠대회는 2019년 총 920개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616개 대회와 비교해 49.4% 증가한 규모이다. 이상의 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의 결론에는 스포츠산업의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 1. 서론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산업 환경의 혁신적인 변화는 제4차 산업 혁명으로 지칭되며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산업의 발전은 전 산업분야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산업과 같이 소비자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은 제4차 산업 혁명을 지속적인 성장의 변곡점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1]. 이처럼 급변하는 산업 환경 내에서 특정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시의적절한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2, 3].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높은 지원 정책을 수립하

기 위해서는 해당산업의 현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스포츠산업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서 데이터 및 증거기반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설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스포츠산업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이 연구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발행한 「SI포커스 통권 67호」 일부를 수정·보완·재인용하여 제작성한 것임.

연구문제 1: 국내 스포츠 용품 및 프로·경주 스포츠 산업의  
정량적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스포츠 시설과 대회와 관련된 정량적 현황은  
어떠한가?

### 3. 연구방법

#### 3.1 자료수집

국내 스포츠산업 현황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한국의 체육지표[4]」를 활용하였다. 한국의 체육지표에서는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의식, 건강 및 체력, 여가 및 생활체육, 전문체육, 체육인력, 체육시설, 스포츠산업, 체육재정 및 체육복지에 관한 총 8개의 지표(지표별 하위 지표 포함 총 127개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산업 지표, 체육시설, 여가 및 생활체육, 전문체육 분야 지표 중 스포츠산업에 직간접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편 스포츠용품 제조업과 수출입 현황에 관한 내용은 지표의 현실 반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승인통계인 「스포츠산업실태조사」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발행하는 「스포츠 동향 아카이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3.2 분석내용

본 연구에서 선정한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표 1] 스포츠용품 업체 수, 종사자 수 및 매출액(단위: 개/ 십억 원/ 백 명)

구 분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b>합계</b>	<b>3,539</b>	<b>2,799</b>	<b>2,827</b>	<b>7,397</b>	<b>7,647</b>	<b>7,527</b>	<b>338</b>	<b>298</b>	<b>286</b>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403	361	402	488	678	691	26	29	30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268	279	288	386	454	482	25	26	25
	자전거 제조업	52	48	46	92	168	151	4	9	9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330	335	325	370	423	413	30	27	26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71	89	88	129	132	142	7	7	8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46	59	-	52	75	-	2	4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55	30	16	203	216	194	5	6	5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 의류 제조업	1,651	876	915	4,443	4,140	4,031	171	122	113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173	181	174	109	114	108	10	9	9
	스포츠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58	59	62	72	82	84	5	6	6
	스포츠관련 의류 부분품 제조업	61	58	56	41	43	41	3	2	2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스포츠 가방 제조업	154	155	150	117	164	161	8	7	7
	스포츠 신발 제조업	136	145	126	707	772	738	31	32	29
	스포츠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127	137	120	240	209	216	13	14	13

같다. 먼저, 지표들을 ‘스포츠용품 제조업 및 프로·경주 스포츠 현황’, 그리고 ‘스포츠 시설 및 이벤트와 관련된 현황’의 2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첫째, 스포츠용품 제조업 및 프로·경주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1) 스포츠용품의 생산 및 수출입, 2) 프로스포츠, 3) 경주스포츠와 관련된 지표를 기반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둘째, 스포츠 시설 및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1) 스포츠 시설, 2) 스포츠 이벤트에 관한 지표를 통해 스포츠산업 분야 유·무형의 인프라 및 이벤트 개최와 관련된 현황들을 분석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스포츠용품 제조업 현황

2019년 기준 스포츠용품 제조 사업체 수는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총 2,827개로 스포츠 의류 제조업(915개)이 가장 많았으며,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402개),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325개)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스포츠용품 제조업 매출액은 총 7조 5,270억 원으로, 스포츠 의류 제조업(4조 310억 원)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스포츠 신발 제조업(7,380억 원),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6,91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용품 제조업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총 286명으로 스포츠 의류 제조업(113명)이 가장 많았으며,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30명), 스포츠 신발 제조업(29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 4.1.1 스포츠용품 수출 및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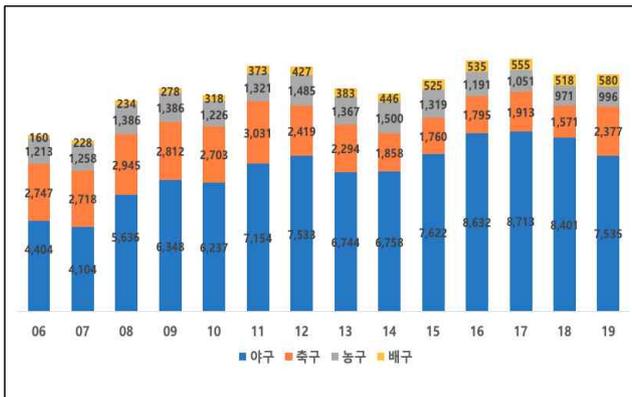
스포츠용품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스포츠용품 전체 수출액은 6,175억 원으로 2019년 6,068억 원과 비교해 1.8% 증가하였다. 스포츠용품의 유형을 구분하면, 스포츠의류(57.5%)는 운동용품(1.5%)과 비교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스포츠신발(-9.2%)은 수출액이 감소하였다.

스포츠용품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전체 수입액은 5조 4,677억 원으로 2019년 5조 5,072억 원과 비교해 0.7% 감소하였다. 스포츠용품의 유형을 구분하면, 스포츠의류(-8.5%)와 스포츠신발(-4.9%)은 수입액이 감소하였고 운동용품(1.5%)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 4.2 프로스포츠 및 경주스포츠 현황

### 4.2.1 프로스포츠 관람객

2019년 한 해 동안 프로스포츠 관람을 위해 경기장을 방문한 관람객은 총 1,149만 명으로 확인되었다. 프로스포츠 관람객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그림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야구(754만명)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축구(237만 명), 농구(99만 명), 배구(58만 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프로스포츠 전체 관람객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도에 가장 많은 입장 인원(1,223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7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8년부터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프로스포츠 입장인원 수(단위: 천 명)

### 4.2.2 경주스포츠 매출액

경륜산업의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연간 매출액은 2조 515억 원이며 일평균 매출액은 13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가장 낮은 연간 매출 1조 5,895억 원과 일평균 매출 117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가장 높은 연간 매출 2조 5,145억 원과 일평균 매출 184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후 2018년도까지 경륜

산업 매출액은 점점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정산업의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연간 매출액은 6,210억 원이며 일평균 매출액은 63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가장 낮은 연간 매출 3,972억 원과 일평균 매출 44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가장 높은 연간 매출 7,348억 원과 일평균 매출 85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후 2018년도까지 경정산업 매출액은 점점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마산업의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연간 매출액은 7조 3,572억 원이며 일평균 매출액은 767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가장 낮은 연간 매출 7조 2,865억 원과 일평균 매출 76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 가장 높은 연간 매출 7조 8,397억 원과 일평균 매출 822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후 2019년도까지 경마산업 매출액은 점점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3 스포츠 시설 및 이벤트 현황

### 4.3.1 스포츠 시설

2019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1인당 면적은 전국 평균 3.82m<sup>2</sup>으로 2018년 3.64m<sup>2</sup>와 비교해 5%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인당 면적은 전남(9.98m<sup>2</sup>)이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강원(9.05m<sup>2</sup>), 전북(6.28m<sup>2</sup>), 제주(5.42m<sup>2</sup>), 충북(5.23m<sup>2</sup>)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등록체육시설에 대한 1인당 면적은 전국 평균 10.11m<sup>2</sup>으로 2018년 9.55m<sup>2</sup>와 비교해 6%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인당 면적은 강원(50.63m<sup>2</sup>)이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제주(50.07m<sup>2</sup>), 충북(23.95m<sup>2</sup>), 전남(19.11m<sup>2</sup>), 경북(17.35m<sup>2</sup>)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신고체육시설에 대한 1인당 면적은 전국 평균 0.59m<sup>2</sup>으로 2018년 0.63m<sup>2</sup>와 비교해 6%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인당 면적은 제주(3.89m<sup>2</sup>)가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전북(1.4m<sup>2</sup>), 경북(0.98m<sup>2</sup>), 강원(0.91m<sup>2</sup>), 전남(0.86m<sup>2</sup>) 순으로 나타났다.

### 4.3.2 스포츠 대회 개최

스포츠이벤트 부문의 국내 스포츠대회는 2019년 총 920개의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는 전년도의 616개 대회와 비교해 49.4% 증가한 규모이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축구(62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골프(41회), 테니스(37회), 태권도(33회)

순으로 많이 개척된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스포츠용품 제조업 및 프로·경주 스포츠와 관련한 주요 지표들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 스포츠용품 생산업체의 수는 2017년 이후 2019년 까지 점진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매출액 규모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업체별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사업체 수’, ‘매출액’과 같은 지표로 분석한 업체별 생산성은 자본투입이나 노동투입 등과 같은 생산요소와 산출량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가시적인 지표상으로는 스포츠용품을 생산하는 사업체 단위당 생산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둘째,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여 스포츠용품의 수입과 수출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과 2020년 모두 스포츠용품의 수출액 보다는 수입액의 규모가 현저하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수출입 지표를 스포츠용품의 총수출·입으로 가정하여 무역수지를 계산하면 2019년의 경우에는 4조 4억 원, 2020년에는 4조 8,50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기준 무역수지 388.9억 달러 흑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스포츠용품은 수입 비중이 높다고 판단된다. 스포츠용품 제조업의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주요 프로스포츠인 야구, 축구, 농구, 배구를 직접 관람하는 관중의 수는 2018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온라인 및 모바일을 비롯한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프로스포츠 관람 환경이 조성되고 특히, 5G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IT) 및 증계기술(예, AR 활용, 호크아이 도입 등)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프로스포츠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직접 관람객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기장을 방문했을 때 관람객이 지각하는 관람 품질이나 소비자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2019년을 기준으로 주요 경주스포츠인 경륜, 경정, 경마 종목의 연간 매출액은 10조 2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스포츠산업 전체 연간 매출액이 80조 6,84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경륜, 경정, 경마 3개 종목의 비중은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12.4%를 차지한다. 여기에 스포츠도도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업종을 더하면 스포츠베팅업의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주스포츠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경주스포츠의 매출액 규모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 국내 불법 스포츠베팅 매출 규모가 20조 5,000억 원<sup>2)</sup>인 것을 고려하면 스포츠베팅에 대한 수요가 불법적 시장으로 이동한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또한, 합법 투표권인 스포츠도도의 2019년 매출이 5조 1,000억 원이라는 점 역시 합법적인 시장 보다는 불법적인 형태의 스포츠베팅에 대한 소비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베팅을 통한 수익 창출과 배분이 스포츠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 만큼 음지의 수요를 양지로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절실하다.

2019년 기준 국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의 면적은 전년도와 비교해 5% 증가하였다. 그리고 등록체육시설에 대한 1인당 면적은 전국 평균 10.11m<sup>2</sup>으로 전년도의 9.55m<sup>2</sup>와 비교해 6% 증가하였으며, 신고체육시설에 대한 1인당 면적은 전년도와 비교해 6%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2017년 이후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등록체육시설)의 1인당 면적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활용가능한 자원의 증가로 인해 스포츠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지표는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면적이므로 체육시설의 종목이나 특성(예, 실내 및 실외 등)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스포츠 시설의 활용과 관련된 스포츠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지표 설정과 자료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1] 신성연, 이원재, 김혜란, “스포츠서비스산업 SWOT분석을 통한 정책 지원방향 도출에 관한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제 21권 4호, pp. 1-36, 11월, 2020년
- [2] 장현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성장단계의 조절효과와 반복적 정부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 28권 4호, pp. 251-275, 12월, 2018년
- [3] 김대진, 박다인, “기업의 전략 및 정부 지원 정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혁신형 인증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 11권 1호, pp. 13-27, 3월, 2016년
- [4]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9 한국의 체육지표”, 2020년

2) 한국법제형사정책연구원 발표 자료(2021. 6. 28)